

성시신문 Magazine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252

Spring 2024

성시화

행복한 가정의 비밀

기획특집

그 길을 걷다

감동을 주는 신앙인

기획연재

춘천중앙교회의 주일학교 가극과

대사경회

지방 소멸 시대와 성시화운동

문화에 빠지다

맛기행 막국수

영화이야기 기독교 유튜브

영화감상 구원

책속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나는 문학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건강 메밀

SPRING



창간1998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Contents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성시화

03 행복한 가정의 비밀 | 편집부

기획특집

06 그 길을 걷다 | 이영규 목사

09 감동을 주는 신앙인 | 이연희 목사

기획연재

12 춘천중앙교회의 주일학교 가극과 대사경희 | 김동정 장로

15 지방 소멸 시대와 성시화운동 | 조용호 박사

문화 | 영화 | 책 FOOD MOVIE BOOK

16 맛 기행 예수의 미소 | 이관형 권사

18 영화이야기 기독교 유튜브 | 김춘배 화백

20 명화감상 | 구원

21 책 소개 책속의 책 | 정숙현 전도사

22 건강 메밀 | 이시형 원장



춘천성시화운동후원하기

후원
참여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

춘천성시화운동본부 QR코드 후원참여에 들어가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

편집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수석부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주향교회 이병철 목사(고정희 사모) 부부를 만났다. 이牧사는 춘천의 대표적 구국기도회인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의 실무책임자이기도 하다. 어느 가정보다도 주님 중심적이고 잉꼬부부로 소문이 나 있는 이병철 목사 부부로부터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들어보기로 한다.

최상도 목사 :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은 어떤 배경에서 자라오셨습니까?

저는 강원도 동해에서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경기도 연천으로 이사가 가 초,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의정부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재수하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어 서울에 있는 한국성서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독실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절에 다니시는 친 불교적이었고, 가족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부모님 두 분 모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두 분 다 소천 하셨습니다. 형제들도 거의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고향이 강릉이고, 3남매 중 둘째로 위로 큰 처남과 작은 처남이 있습니다. 초, 중, 고를 모두 강릉에서 나왔고, 서울로 대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아내의 아버님은 강릉에서 교사로 재직하셨으나 아내가 대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강릉에 사십니다. 아내의 가정도 아내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 학교 선배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학교에서 가까운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옥한흠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부에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신앙적으로 더 깊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최 : 두 분은 처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희는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만났습니다. 아내는 대학 1학년 때에 선배 언니의 전도로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대학부에 다녔고, 저는 1년 재수를 하고 서울로 신학교를 가면서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면서 대학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랑의 교회는 또래 학년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었기에 같은 또래 학년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에 대학부에서 충청도로 농촌 봉사 활동을 가게 되었는데, 어린이 성경학교 팀과 농촌 일손 돕기 팀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학교 팀장을 맡았고 자매는 성경학교 교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학교를 하면서 자매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섬기고, 심지어 어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순수한 모습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농활 후에 여러 차례 만남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고 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배우자를 놓고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대학부에서는 교역자의 허락이 없이는 연애를 엄격하게 금하는 상황이라 교역자의 허락을 받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방학 때면 주로 농활이나 섬전도, 그리고 선교 한국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비전을 공유하게 되면서 교제가 깊어졌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최 : 결혼 당시, 혹은 살아오면서 결혼 생활 미담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교제가 결혼으로 이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기에 교제하면서 혹시나 서로 맞지 않으면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자매를 통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 주례를 당시 사랑의 교회에서 상담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에게 부탁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저희 두 사람을 위해서 결혼예비학교를 몇 주간동안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결혼해서 자녀를 몇 명이나 둘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자녀가 네 명이셨기에 적어도 세 명을 낳아야 한다고 강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압박에 세 명 정도 낳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섯 명의 자녀를 두자, 그 목사님이 주례한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덕분에 요즘 애국자란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결혼 후에 사역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농촌선교에 대한 제안을 받았었는데, 당시 아내는 서울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만약 농촌선교사로 가게 되면 서울에서의 교사생활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이 부분을 말했는데 아내는 우리를 꼭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하지 않겠냐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에 큰 용기를

연고 화천에 농촌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화천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저는 농촌선교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고, 아내는 아이들을 낳고 나를 농촌 생활을 즐기면서 잘 생활했습니다. 농촌에서 할머니들을 비롯한 몇 명 안 되는 농촌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그동안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우리 부부의 영적 거품도 빠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면서 서로 더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 : 행복의 비밀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연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환경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정말 많았지만, 성경적 가치인 ‘돕는 배필’에 대한 마음으로 결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에서 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서로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봅니다. 돕는 배필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서로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서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사랑은 즐기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결혼해서는 사랑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녀들과 함께 계속해서 큰 사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사랑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만들어 가는 비결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취재/최상도 목사, 편집위원)



그 길을 걷다

이영규 목사
(신복성결교회, 성시신문 편집위원)

지난 호에는 러시아에서의 일을 중심으로 썼는데 그 글이 인쇄되어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 여러분이 읽기도 전에 저는 한 번 두 번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번엔 태국이 YMer(예수전도단 사람들)의 땅인 것 같았습니다. 부름 모두 예수전도단 파송 선교사님의 초청이었고 만난 분들도 예수전도단 선교사님 중심이어서겠지만, 태국을 아래로 위로 다니면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엄청 죄송합니다. YMer가 아닌 다른 선교 단체나 선교사님들에게는요, 그리고 태국 교회에도. 그러니 이글이 지극히 소아적이고 주관적이며 내용도 다른 것을 넘어서 틀리기도 하겠지요. 그냥 걸레처럼 가볍게 여겨주세요. 리처드 포스터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말했었는데도 저의 결론부터 말하면 “태국은 불교의 나라이고 착함으로 승부?를 보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만 오히려 착함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라고 살면서 닦아봅니다(조급함은 특히 선교에서는 더 마귀의 속임수라고 생각이 되어 제 마음에 새기자고 브레이크를 걸어 인용합니다. 한 마디로 통을 치는, 용감하게 무식을 드러내지만 글을 잘 못 쓰는 자라). 성경으로 말하면 맥락은 다르겠지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태국 선교에 있어서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빌 1:9-11)

〈태국 방콕 한인 예배당(아래 사진)〉



조국교회의 태국선교가 올해 68주년이 되는가 봅니다(배우기로는 시작이 1956년 6월이라고 배워서). 사도 바울 시대인 제국국가의 시대엔 언어와 사상의 축이 연결되어 있어 시간상으론 짧게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지만, 각국도생하는 시대엔 토착화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이 나타날 때까지 많이 머물러야 하는가 봅니다. 그러기에 선교사님들을 응원하며 위로하며 협력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이런 이유로 연이은 부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



축구 선교 부지

며 모든 것을 건넌다잖아요. 지금은 복음을 총체적으로 전해야 하기에 축구(축구선교로 쓸 땅은 구입했는데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못 하고 있는 처지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혹 도울 사람이 있을까요?)로도, 태권도(한때 합기도로 선교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초청한 분이 바로 이 태권도로..)로도, 음향(위십 음원을 고음질로 들을 수 있도록 편집하고 또다시 녹음하고, 기존 파일이 WMA나 MP3여서 WAV 파일로 변환하고 리믹스시켜야 할 것을 시키고 등등^^)으로도 전해야 하고요(이번 것만 말하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마 12:20-21) 주님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니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품어 보자고요.

결과적으로 보니 이번 선교여행은 하나님의 또 다른 작정이 있었나 봅니다. 이번 태국 1, 2차 방문 모두 함께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태국을 품는 은혜를 주셨고 이번 여행으로 그는 태국 선교를 결심하게 되어 소속된 교단의 선교부에 문을 두드렸고 선교사 후보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예요. 그 목사님(이제 선교사님이 되겠죠)은 태국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질의 신앙서적을 번역하고 싶어 합니다. 영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에 따른 소원이니 가기 전인데도 뜻을 세운 것으로 기뻐하는 그를 보니 그가 성취해 기뻐하는 음성이 들리는 듯 그를 보는 저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전 대학원에서 선교 관련 소논문을 쓸 때 히말라야는 능력으로 넘어야 하고<선다 싱(S. Singh 1889-1929)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슬림지역은 사랑으로 넘어야 하며(이스마엘은 이삭의, 예서는 야곱의 형제이기에 단순한 생각이지요) 예루살렘은 다시 메시아이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넘어야 한다고 썼던 생각이 납니다. 벽안의 선교사가 만난 조선 사람 이야기에서 K(한국, 뭐 적당한 말이 없나요? ^^) 선교사가 만난 산족 사람(태국, 히말라야, 무슬림, 이스라엘, 땅끝 사람) 이야기가 진설되기를 바랍니다.

20대 초반의 제임스 프레이저(20세기 초 중국 서남부 원난의 깊은 산지에 자리 잡은 리수족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고향 동창생에게 보냈던 편지로 이 글을 마칩니다.

“240km 반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니 참으로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제 연약함을 무척 많이 느끼지만 주님은 제 연약함을 온전케 하실 일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중국에서든지 영국에서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자라게 하는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선교사의 일이 본국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신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마지막 날에 가보면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제럴딘 하워드 테일러, <제임스 프레이저>, 조이선교회 omf)

감동을 주는 신앙인

비타민 숲 무릉도원지기 한상술 대표의 두 번째 이야기(춘천온누리교회 권사)

이연희 목사
(아미교회)

힘차게 비상하는 독수리같이 감동을 주는 사람, 한상술 권사님의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한 권사님은 키도 작고 아담하고 귀여운 체구를 가지셨지만 가꾸고 활동하시는 규모는 참으로 작은 거인 같은 분이십니다.

비타민 숲의 규모가 수천 평이 넘고, 근처 쟁강의 개복숭아들을 가꾸는 일, 사계절 피어나는 2백여 종류의 꽃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구석구석에서 피어납니다. 화려하면서도 곱고, 아름다우면서도 단정한 꽃들은 한 권사님의 정성 어린 손끝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각종 유실수도 풍성한 과실을 맺도록 전지를 해주고, 거름을 주고, 수형을 잡아주며, 100년 넘은 단풍나무과의 신나무도 주변을 정리하여 잘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산책길도 벚나무들로 터널을 이루어 시원하게 산책하기 좋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타민 숲 무릉도원이라 이름 짓게 된 동기

비타민 나무는 12가지의 비타민과 28가지의 아미노산이 많은 열매가 달리는 나무입니다. 40대에 극한 고통에 시달리던 몸을 치료하던 중 비타민 나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타민 나무와 열매를 통한 약초와, 쑥뜸으로 인한 치료효과, 철저한 기도에 자신을 드리는 삼박자 치료법으로 지금은 온몸이 건강하여 그 크고 넓은 수천 평의 비타민 숲 무릉도원을 손수 가꾸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비타민 나무의 열매와 잎은 모두 약재로 사용되고, 쑥뜸 방도 운영하고, 최선을 다하여 새벽에 기도시간을 확보하십니다. 육체의 건강에 비타민 같은 영양제는 필수이듯이 비타민 숲 무릉도원이 “복잡한 현대인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에게 무릉도원 같은 처소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후대까지 영육 간에 힐링과 쉼, 느리면서도 온전하고, 고요한 쉼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도하시며 돌보는 비타민 숲 무릉도원 펜션은 지치고 힘든 영혼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신앙전수 5대째

한 권사님은 친정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신앙심을 자녀 손까지 5대째 전수하면서 신앙의 가문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의 할아버지는 양귀자, 서양귀신을 집안에 끌어드린 늬이라고 한씨 가문에서 파문당하셨습니다. 그리하자, 고향인 청주에서 충주로 이사해서 터전을 잡으셨는데 진사이셨던 할아버지가 파문당하시고, 힘든 생활과 고모를 잃은 충격으로 인해 할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으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는 세 아들을 데리고 영월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교회가 없던 영월에서 새로운 타향살이를 시작하셨습니다. 구한말에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 권짜리 두꺼운 성경(팔절지 크기로 아주 두꺼운 성경)과 여러 신앙서적을 받으신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직접 신앙교육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선교사님들로부터 성경과 성경관련 신앙서적을 많이 받았는데 6.25 때 인민군들이 뺏아갔지만, 성경책은 잘 보관하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소중히 간직하셨습니다.”

그 성경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행방을 알 수 없어서 안타깝다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고향을 떠나 영월로 이사하신 후 고향에 못 돌아가시고 소천하셨고,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87세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9남매를 교회가 없던 어린 시절에 성경만 가지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실 정도로 독실하게 신앙을 지키셨습니다. 교회가 없었지만 구전으로 직접 성경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것이 어린 시절 신앙교육이었습니다.”

또한, 어머니 권사님께서 87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고, 새벽예배 때 엄마랑 함께 종을 치고, 교회 봉사하는 일에 힘쓰셨던 삶으로 지금의 한 권사님과 9남매 형제들이 되었다 합니다.

청년 때 경운기로 모래 자갈을 운반해서 벽돌을 찍어 교회를 건축하고, 화단을 만들고,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영월 주천의 용석교회(합동)가 어릴 때 출석하던 교향교회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가정에서 두꺼운 성경책을 가지고 철저히 가르치던 아버지의 신앙교육은 싫기도 하고, 반항도 생겼습니다. 의문나는 것도 많았고, 믿기지도 않았습시다.”

호기심 많던 시절, 목사님께 의문나는 것을 많이 질문하니 아침, 저녁기도회를 참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977년 20살 정도 되었을 때, 부활절을 앞두고 다니던 새벽기도 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고 그동안 의문과 호기심들이 모두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회에서 은혜받은 뒤 의심나고, 믿어지지 않던 궁금한 것들이 다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새벽기도의 힘

새벽기도를 통하여 은혜받은 한 권사님은 기도의 중요성과 더불어 새벽기도를 소중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자동차 시동을 걸 때부터 기도를 시작하지요, 예배하고, 기도로 시작한 하루는 평탄하고, 질서 정연한 하루가 되게 합니다.” 자동차로 운전하여 25분 거리의 새벽기도를 지금도 계속하는 것이 많은 활동과 일을 넉넉히 짊어지고 가는 힘이라는 것을 즐거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전수를 위한 몸부림과 결단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란 권사님은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약속했기에 “전도하면 되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반대하던 부모님께 당차게 대답하고 결혼하였습니다.

“많이 울었지요. 눈물 많이 흘렸지요. 눈물을 얼마나 바가지로 흘렸는지 몰라요, ‘가서 전도하면 되지’ 그 말 책임지느라……” 그간 고생하신 삶을 들려주셨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약속하였기에, 순진한 마음에 믿어버린 어린 가슴에, 자녀들이 어릴 때는 수없이 울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많은 순간의 가슴 아픈 시간을 참고 지내왔기에 자녀들이 신앙인으로 모두 자라고 있고, 힘들어도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한 세월에 귀한 신앙의 자녀들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남편은 군악대 출신으로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봉사하는 장로님이 되었으니, 수많은 눈물의 씨앗으로 귀한 결실을 얻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예’자도 모르던 시집, 시외할머니까지 교회로 전도하시게 되었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지난날을 회상하시는 권사님의 열심히 달려온 모습은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 (잠 14장1절)”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봄이 오면 봄꽃들의 축제와 향연을 보러 달려가고 싶은 비타민 숲 무릉도원지기 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 권사님의 세가지 기도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세요

1. 부르신 곳에서 맡겨주신 삶을 잘 세우는 믿음의 명문가문이 될 수 있도록
2. 주님 주신 강건함과 평안한 삶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길
3.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자녀들의 삶이 되길



춘천중앙교회의 주일학교 가극과 대사경회

김동정 장로

(춘천신성감리교회, 가톨릭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남감리회의 선교백년 기념사업은 공식적으로 1923년에 종결되었다. 이 사업은 1918년에 시작되었지만 3·1운동 때문에 본격적인 전도 운동은 1920년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운동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선교사들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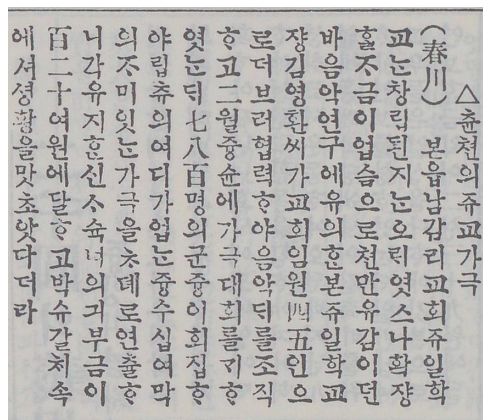
특히 선교백년 전도운동은 춘천지방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이런 결과는 유한익 목사가 인도하는 전도단의 활동과 춘천 교인들의 자발적인 전도 열기에 힘입은 바가 컸다. 교회는 이들 자원 전도자들을 훈련하고 파송하기 위한 특별 사경회와 부흥회를 열어야 했다. 물론 그 장소는 춘천 교회(현 춘천중앙감리교회) 예배당이였다.

성인들의 사경회와 부흥회가 당시 교회성장에 기여했다고 한다면 주일학교는 가극 같은 창작음악도 한 몫하고 있었다.

춘천의 주일학교 가극

1924년 2월 중순에 춘천읍교회(현 춘천중앙감리교회) 주일학교에서는 가극대회를 열어 7~8백 명이 운집하였고 기부금도 120여 원이나 모였다고 『기독신보』에는 기록하고 있다.

본읍남감리교회 주일학교는 창립된 지는 오래 되었으나 확장할 자금이 없으므로 천만 유감이던 바, 음악연구에 유의한 주일학교 김영환씨가 교회임원 4~5명과 더불어 협력하여 음악대를 조직하고 2월 중순에 가극대회를 열었는데, 7~8백 명의 군중이 회집하여 입추의 여지가 없는 중 수십여 막의 재미있는 가극을 차례대로 연출하니, 각 유지한 신사숙녀의 기부금이 120여 원에 달하고 박수갈채 속에서 성황을 마쳤다더라.



춘천의 주교가극 기사(『기독신보(1924.3.26)』)

이렇게 성황리에 끝난 가극은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1929년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인제음교회에서 ‘제1회 춘천지방 주일학교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음악회와 가극회도 열려 각광을 받을 정도로 전도에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춘천지방 대사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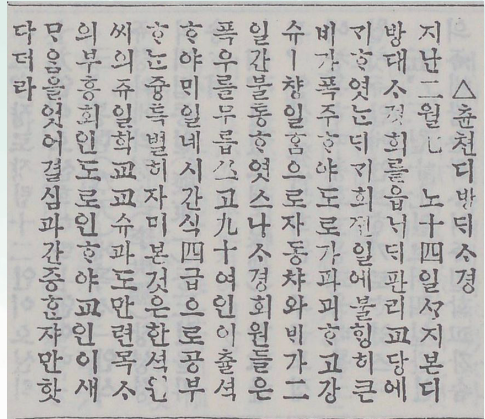
춘천지방은 12개 구역에 53개 교회로 구성되었는데, 새로 짓거나 구입하는 예배당과 전도사 사택이 많이 있고 새로 지을 예배당도 여러 곳 된다는 보고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지방교회 사정을 읽을 수 있다.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은 사경회와 부흥회, 그리고 전도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간(其間) 지방 내에서 대사경회(大查經會) 급(及) 촌사경회(村查經會)는 자미(滋味)가 다대(多大)하엿삽는데 참인수(參人數)가 대사경회에만二百인 가량이엇고 촌사경회도 내 참인수(來參人數)가 다대(多大)하야 자미를 만히 보는 중 교인의 열심을 보는 중 마암에 깃뼘을 만히 엿엇고 감사와 영광을 주전(主前)에 돌니넛나니라. 특히 대사경회에서 도마련(都瑪連) 목사를 청하여 부흥회를 인도케 하엿삽는데 신령적(神靈的) 자미가 더욱 만히 나니라. 대전도(大傳道)와 신교회(新教會)를 설립케 하는 사업은 재정상(財政上) 부족으로 인하여 만히 못하얏사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옵든바 대전도단(大傳道團)이 본 지방에 내(來)하야 활동한 결과로 七처소의 신교회(新教會)를 기성(起成)케 하엿나니라. 작년 연회 이후로 대전도단의 전도와 구역 각 교회 전도로 인하여 수백인의 신신자(新信者)를 어덧슴으로 감사하오며 특히 본 지방에는 주일학교(主日學校)가 만치 못함으로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엿나니라. 그래서 지방대사경회를 이용하야 도마련(都瑪連) 목사를 청하야 주일학교에 대한 모든 방식(方式) 급(及) 선전(宣傳)을 하엿나니라.” [(민길도, 「춘천지방 장로사보고」, 『남감리교회 조선매년회 회록』; 『춘천중앙교회사』(2007) 277쪽에서 재인용].

춘천교회 대판리 예배당에서 개최된 ‘대사경회’는 춘천지방, 춘천북지방 연합으로 개최되었는데 저녁 집회는 서울로 옮겨가 연회 주일학교 총무로 활동하고 있던 스톱스 목사가 내려와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지방전도운동은 선교백년 전도운동 때처럼 활발하지는 못했지만, 유한익 목사가 이끄는 대전도단이 활동한 결과 일곱 곳에 새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스톱스의 강연으로 지방 내 주일학교 운동이 활성화된 것도 특기할 내용이었다.

춘천읍교회에서는 2월에 대사경회를 1주일 동안 개최하였는데, 큰 비가 내려 도로파괴와 뱃길 단절로 사경회를 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90여 명이나 출석하여 매일 4시간씩 공부하였다고 『기독신보』에는 기록하고 있다.

지난 2월 7~14일까지 본 지방 대사경회를 읍내 대판리 교당에서 열었는데, 개회 전날에 불행하게 큰 비가 폭주하여 도로가 파괴되고 강물이 창일하므로 자동차와 배가 이틀간 불통하였으나 사경회원들은 폭우를 무릅쓰고 90여 명이 출석하여 매일 4시간씩 4급으로 공부하는 중, 특별히 재미 본 것은 한석원씨의 주일학교 교수와 도마련(都瑪蓮, M. B, Stokes) 목사의 부흥회 인도로 인하여 교인이 새마음을 얻어 결심과 간증한 자 많았더라



춘천지방 대사경 기사(『기독신보(1924.3.26)』)

춘천지방 성장과 부흥의 구심점이었던 춘천교회는 지방 행사와 집회의 단골 장소가 되었다. 춘천교회 교인들은 그런 집회가 열릴 때마다 성심으로 준비하고 대접하였다. 춘천교회 교인들은 집회 중은 물론이고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였다. 1925년 11월 역시 허문리 예배당에서 개최될 예정인 춘천 지방회와 지방 사경회를 위해 춘천교회 교인들은 ‘특별 새벽기도회’ 까지 열었다. 이처럼 춘천교회 허문리 예배당은 춘천 시내와 춘천지방 선교의 구심점이 되었다. 춘천교회는 1924년 새 예배당을 마련함으로 춘천과 강원 지역의 ‘모 교회’로서 선교의 사명을 한층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

지방 소멸 시대와 성시화 운동

조용호 박사
(춘천성시화연구소장)

성시화를 경제학적으로 보면, 재화(상품과 서비스) 그중에서도 “지방공공재”로 볼 수 있다. 성시화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그 바탕은 국가가 아닌 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엘슨(Samuelson)이라는 경제학자는 공공재는 누구나 대가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재화이므로 시장기능을 통한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정치적 과정에 의하여 공급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마치 이 주장이 더 이상 논쟁의 필요가 없는 확정된 이론이라는 의미에서 “The pure thoery of---”라며 논문에 the를 붙였다. 이러한 사무엘슨의 공공재 공급의 메커니즘에 반기를 들면서 머스그레이브(Musgrave)와 티브(Tiebout)는 공공재 중에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는 주거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지방 사람의 동등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클럽재(Club good)와 유사하다고 분류체계를 달리하였다. 티브는 사무엘슨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the”를 “a”로 바꾸어 불렀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사람들은 지방공공재의 수준과 비용을 고려하여 자기가 살 곳을 정한다. 지방공공재의 선택성 때문에 미국이나 스위스, 유럽국가처럼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대학교 등록금이 지역 출신 학생과 타지역 출신의 학생 간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세 감면이나 각종 지원정책을 지역마다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가 발달하는 것도 이러한 지방공공재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춘천성시화는 춘천에서 만들어 가는 재화가 담아내야 하는 가치와 목적을 제시한다. 춘천에서 만들어 가는 재화에는 춘천의 국가기관이 만드는 국가공공재, 춘천시와 공공기관이 만드는 지방공공재 그리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사적재(private goods)가 있다. 교회는 이러한 재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수월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성시화 운동은 한 교회나 개인의 뛰어난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춘천 성시화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도시 개혁운동이다. 춘천에서 공공재를 만드는 사람이든 사적 분야에서 사적재를 만드는 사람이든 창조주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주인 됨을 마음에 새기고 주께 드리듯 재화를 만들어 갈 때 춘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작은 일에도 주께 하듯 정성을 다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같아지고 춘천에서 만들어지는 재화에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아낼 것이다. 이런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재화는 품질이 높다.

그래서 성시화 운동은 인구소멸, 지방소멸 시대에 도시를 살아나게 하는 특별한 전략이 된다.



막국수..... 너마저

이관형 원장(춘천 자연유치원)

두루치기정식(우두동 미반), 한식(칠전동 김홍석들밥), 치즈돈가스(중앙시장 수제돈가스) 닭곰탕(후평동 썸), 한우육개장(동내면 견우성), 소머리국밥(중앙시장 금선집), 순대국(중앙시장 할머니순대국밥), 만두전골(후평동 오월애), 뚝배기짬뽕(동내면 도원), 감자옹심이(동면 밀밭) 냉면(사농동 평양냉면)

위에 열거한 음식은 믿기지 않겠지만 춘천막국수 1인분(11,000원)보다 전부 저렴한 음식이다. 물론 춘천 관내 막국수 가격이 11,000원보다 저렴한 곳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 원대로 슬금슬금 오르고 있으니, 고향이 춘천인 내 속마음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씁쓸하다 못해 배신감이 드는 건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막국수의 메밀가루도 원산지가 국산이 아닌 중국산도 많다. (심지어 사이드 메뉴의 두부와 녹두전도 미국과 중국산. 편육은 네덜란드, 스페인 등 주로 유럽산이다)

국수의 형님격인 평양냉면(사농동 평양냉면)도 1만원이지만 막국수와는 달리 비싼 한우 양지로 우려낸 고기 육수에 고명으로 막국수처럼 삶은 계란 반 토막이 아닌 두툽한 소고기 양지 수육 한 점이 들어있어 제 가격을 다한다는 생각이 든다. (막국수집 육수는 고기를 삶은 물이 아니라 그냥 면을 삶은 면수다)

그동안 본보에 그다지 글재주도 없으면서 자칭 맛 칼럼니스트라 우기며 내 주관적인 음식 맛으로 맛 칼럼을 써온 지도 어느덧 14년이 됐다. 그동안 체인점이 아닌 숨어있는 맛집 중 교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주로 소개했다. 하지만 다루지 않은 음식 중의 하나가 바로 막국수였다. 춘천의 명물인 막국수는 속초의 횃집(420개)만큼 식당이 많고 거기에 해마다 열리는 막국수 축제는 물론 막국수 박물관도 있다. 하지만 막국수는 양념장에 따라 제각기 입맛이 틀려 호불호가 있으니 함부로 어느 음식점 맛이 좋다고 소개했다가는 자칫하면 욕을 먹기 십상이라 닭갈비와 마찬가지로 맛집을 소개한 적이 없다.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막국수 하면 (강원도 영동 사람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국민들 대부분

이 매스컴의 영향으로 강원도 춘천을 제일 먼저 인정해 줄 것이다. 서민 음식의 대표자격인 막국수는 어찌 보면 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준 춘천의 고향 음식으로 예전엔 타지인들이 춘천에 오면 배가 부르더라도 값싸고 맛있는 막국수를 그냥 간식 대용으로 먹고 간 적이 많았다. 요즘 따라 그 시절이 그립다.

막국수 음식점에 20, 30대 신세대들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막국수를 좋아하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신세대들은 입맛도 다를뿐더러 요즘같이 어려운 경기에 절약을 미덕으로 찾는, 재미로 찾는 세대이기에 그다지 사이드 반찬도 없는 밍밍한 막국수를 비싸게 사 먹을 이유가 없다. 그럴 바엔 차라리 교동짬뽕(남춘천점)에서 짬뽕과 김밥을 주문해서 먹을 것이다.

필자가 35년 전 대학생 시절!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알바를 할 때 사장이란 분이 치킨 한 마리 파는 것과 막국수 한 그릇 파는 거랑 마진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매번 귀가 따갑게 푸념을 늘어놓았는지 지금도 치킨 or 막국수를 보면 쓸데없이 그때 생각이 가끔씩 떠오른다. 면 음식이 마진율이 좋은 건 우리가 모두 짐작하고 있다.

내 지인이 아주 오래전부터 막국수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전국 팔도의 유명한 막국수 집을 돌아다닌 후 야심차게 막국수 집을 개업했다는 소문을 듣고, 내 직장과 가까운 곳이라 별반 기대 없이 인사차 가서 평상시 먹어보지 못했던 들기를 막국수를 주문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막국수를 담은 그릇은 우리에게 익숙한 스테인리스 식기가 아닌 도자기 접시며 고명 또한 기존 막국수와는 다르게 폭 삶은 시래기 무침과 살강되게 익힌 무나물로 바뀌서 플레이팅 한 것뿐인데 필자가 오래전 프랑스 파리의 어느 근사한 한식 레스토랑에서 비싸게 먹은 잡채처럼 고상하리만큼 맛있었다. 이 같이 변신하면 막국수가 12,000원이 아닌 20,000원 이상 받아도 되는 K-푸드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는 유망 식품이라 생각되었다. (영국에서는 고급 프리미엄 디저트로 붕어빵(비비고 골드피쉬)과 순대(비비고)를 한 접시에 13,000원에 판매한다.)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절벽 시대로 접어들면 막국수를 찾는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 것이 뻔한 일이다. 막국수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도 좋지만 자부심만큼 플레이팅과 가격대를 고려해서 미래의 손님인 젊은 신세대들을 끌어 들어야 할 것이다. 춘천이 고향이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마음에 이 글을 쓴다.

기독교 유튜브 YOUTUBE

김춘배 화백(성시신문 편집위원)

우선 작년 11월 서울신문 김지중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기독교인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다. 책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17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개신교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3.0%가 유튜브를 꼽았다./인터넷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22.4%로 2위였다. 이어 TV가 20.9%, 소셜미디어 9.7%,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8.7%가 뒤를 이었다. 책은 2.4%, 라디오는 2.0%에 그쳤다./연령대가 낮을수록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의존도가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TV 이용률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30대는 OTT, 50대는 라디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매체별 하루 이용 시간은 TV가 127분으로 가장 길었다. 라디오 124분, 인터넷 111분, 유튜브 108분, OTT 93분 순이었다. 특히 하루 한 시간 이상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 연령에서 모두 60% 이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SNS를 비롯한 인터넷과 영상매체가 넘치는 현대 사회에서 유튜브의 영향은 막대하다. 필자도 어느덧 유튜브와 함께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기독교 관련 영상들도 차고 넘치는데, 최근엔 장재기 목사의 기도와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영상물이 아침저녁으로 풍성하게 올라온다. 여러 성경 지식이나 역사 및 타종교와의 비교 등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 정말 분별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유명한 <인디아나 존스>의 작년에 나온 최신 시리즈 <운명의 다이얼>을 보다가 ‘통기누스의 창’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 십자가 처형 때 허리에 창을 꽂은 로마 병사 이름이라고 한다. 검색해 보니 그 이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여 알려진 이름인지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관련 영화가 있다는데 찾아보니 유튜브에서 찾아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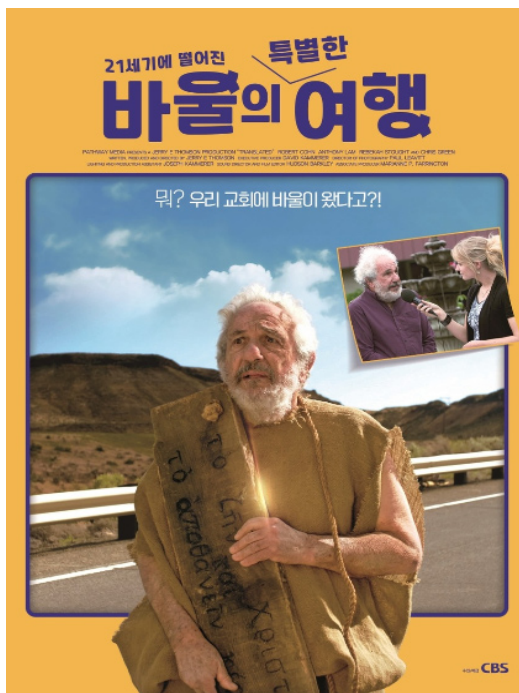
〈롱기누스: 그리스도를 죽인 자〉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다. 구매해서 보려는데 다른 흥미로운 제목의 영화들이 서너 편 더 있었다.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 롱기누스 그는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고난의 여정 속에서 만난 여행자 요한을 통해 예수님과 그의 사랑, 용서에 대해 알게 되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눈먼 백부장!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의 처절한 고백!”이라고 소개된 롱기누스 이야기는 예수님 십자가 고난 중 생긴 숨겨진 이야기로 그다지 큰 은혜와 감동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소재였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머지 두 명의 죄수 중 한 명인 도둑의 이야기 〈구원받은 도둑〉도 비하인드 스토리로 흥미할 만한 영화였다. 성탄절에 보면 좋을 〈동방박사: 구원의 별을 따라〉는 예수 탄생 예언을 따라 각자의 신념을 위해 떠나는 여정 속에서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정서와는 조금 낯설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흠이다.

AD68년 로마에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눈 떠보니 21세기 오레곤주 로마에 도착해 있다는 매우 재미있는 설정을 다룬 〈21세기에 떨어진 바울의 특별한 여행〉도 흥미롭기는 한데 은혜로운 감동은 기대만큼 없어서 실망스러웠다. 현대에서 노숙자로 불리게 된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까를 그린 약간 코믹한 분위기의 영화이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은혜를 일상적으로 풍성히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걷잡을 길 없이 넘치는 세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분별력으로 지혜로운 영상문화의 향유가 되기를 바란다.



Salvation

245.7×112cm
oil on canvas & wood

작가 김복동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을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요한복음 20장 27~29절)

열 두 제자 중 도마(Thomas)는 예수의 부활을 전해 듣고, 직접 보지 못해 이를 믿지 않았으나, 예수의 옆구리에 찔린 창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서야 믿게 되었다. 이 주제의 명화 카라바조(Caravaggio 1571~1610)의 의심하는 도마(The Incredulity of Saint Thomas 107 X 146cm 캔버스에 유채 포츠담 신궁전) 작품에는 예수와 세 명의 사도만이 등장한다. 인물들은 캔버스 안에 꼭 들어차있으며, 어두운 배경 속에 인물들의 시선은 예수의 옆구리에 난 상처와 도마의 손가락을 향해있다. 예수의 상처에 도마가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인 듯 생생하면서 동시에 매우 충격적이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 속에 일어난 진실인 것을 현대인들은 도마와 같이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등불을 든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은 그 역사적 사실을 간절히 전하고 있다. 그는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노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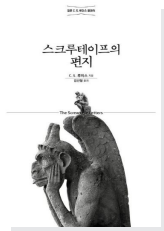
책속의 책

정숙현 전도사(안디옥교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 C. S. 루이스 글 / 김선형 옮김 / 홍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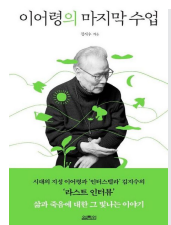
“악마의 유혹에 대한 기발한 통찰력”

비웃고 경멸하고 놀림감이 되는 것을 무엇보다 참지 못하는 오만한 영 악마를 실컷 눌러주려고, 뛰어난 유머와 지혜로 악한 것들의 속마음을 파헤친다. 하마터면 그들의 짓일지 아닐지 생각조차 못하던 부분들과, 선과 악 사이의 모호한 것들까지 그 근원을 파헤쳐 주는 것들이, 살아가면서 대충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고와 삶의 구조를 여러 모양으로 재조정해준다. ‘악마가 보인다’고 해도 좋을 만큼 신선하고 진지하면서도, 속아 넘어가고 있던 나를 발견하게 해서 무릎을 치게도 한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 김지수 · 이어령 글 / 열림원

앞서 걸으며 깨달았던 지혜를 선물하는 스승, 미처 알지 못했던 내 영·혼·육을 자라게 돕는 스승, 죽음이 무엇인지 알려 주기 위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애태우는 스승, 그리하여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까지 이끌어주는 스승. 이런 스승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있을까? 궁금해지며, 이런 스승을 찾고 싶어지게 한다. 우리 시대의 대표 지성인이라 불리었던 스승이, 애제자 김지수 기자에게 매주 화요일 열여섯 번의 만남을 이어가며 고난, 행복, 사랑, 용서, 꿈, 돈, 종교, 죽음, 과학, 영성 등 다양한 주제를 나누어 준다. 스승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살아왔던 삶의 지혜들을 토해내는 과정을 책장을 넘기며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한다.



나는 문학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 이정일 글 / 예책

문학 박사이자 목사인 저자는, 특정한 아홉 편의 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해박한 문학적 지식과 오랜 신앙적 경험을 토대로, 문학이 인생과 신앙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차근차근 친절하게 들려준다. 저자가 문학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다. 더욱 깊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일상에서 언제나,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또 친한 친구이자 선생이 되어줄 수 있는 문학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도우미라고 말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싶은 독자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책을 읽어보길 추천한다.



메밀

이시형 (이시형 한의원 원장)

춘천은 막국수의 고향이다. 필자도 어릴 적 어머니가 장에 다녀오시면서 사가지고 온 막국수를 맛나게 먹은 기억이 있다.

메밀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해졌는데 문헌의 기록으로는 고려 때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에 처음 나온다. 메밀은 추위에 잘 견디면서 생육 기간이 짧아 흉년 때의 대작(代作)이나 기후 토양이 나쁜 산간 홍작 지대의 응급 작으로 적응성이 크고 영양가가 높으면서도 저장력이 강한 특성이 있다. 메마른 땅에도 잘 적응하고 병충해도 적어 황무지에서도 쉽게 살 수 있어 예전부터 구황식물로 많이 재배되었다.

막국수는 메밀로 만든다. 메밀은 교맥(蕎麥)이라 하여 동의보감에서는 성질이 평하면서 차고 맛이 달고 독이 없고 위장을 든든하게 하고 기력을 돕는다고 하였다. 오장에 있는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정신을 맑게 한다고 하였다. 여성들의 냉대하에도 쓴다.

메밀잎은 나물로 만들어 먹는데 귀와 눈을 밝아지게 한다고 하였다.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나 체기가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변이 굳거나 종기가 자주 나는 사람에게 좋다.

평소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약하고 찬 것을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은 메밀을 자주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동의보감에서는 메밀의 이런 성질 때문에 막국수를 먹을 때 무나 무로 만든 동치미를 곁들이는데, 이는 무의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매워 메밀의 부작용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막국수는 동치미와 고춧가루로 만든 양념장, 그리고 곁들이는 고추냉이 등이 메밀과 조화를 이루어 남녀노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훌륭한 음식으로 볼 수 있다.

메밀은 찬 성분이므로 베개를 만들어 자면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다.

현대 의학적으로는 메밀에는 단백질이 많아 영양가가 높고 루틴성분이 있어 이뇨작용과 혈관을 튼튼하게 해 고혈압에도 좋다.

비타민B군, 특히 비타민B12가 많이 들어가 있어 쌀이나 보리보다 영양가가 더 높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시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가천홍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고순화 고정희 박복연 박혜옥 박 환 국주영 권경애 권양희 권여림 권영자 권운인 권혁자 권현재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기영 김기자 김다정 김도희 김두철 김매순 김명선 김명희 김문수
김미경 김미라 김미숙 김미향 김민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옥 김상화 김생수 김설아 김성국 김성희 김세환 김수연 김수일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월 김순희 김양수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분 김옥선 김용배
김용선 김용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점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에 김정의 김정희 김중복 김중숙 김중욱 김중익 김중찬 김중희
김주봉 김주혁 김주형 김지영 김춘화 김태균 김학자 김항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욱 김혜란 김화분 나정희 남궁명숙 남궁자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윤미 노정희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순 민병임 박갑출 박건섭 박금화 박금희 박난영 박노향 박덕남 박동호
박동환 박만규 박영관 박문순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상준 박상혁 박선옥 박소영 박소원 박소영 박순덕 박순배 박애자 박영민
박영호 박옥화 박윤철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정관 박정원 박종일 박주환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창범 박춘자 박필상 박 현
박형덕 박혜성 박 희 박희상 방진선 배명순 배미정 배진철 배한나 배한솔 백광일 백춘하 서경숙 서묘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석지찬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병서 손인규 손민순 손학균 손갑수 손근영 손미화 손수정 손영인 손정심 손찬근
신건호 신경자 신금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운수 신종길 심규향 안순연 안한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기중 엄기홍 엄혜련 여경구 연송흙 연정화 엄은희 엄정원 오성남 오성예 오소연 오재영
오홍금 오홍수 용애중 용영옥 우혜진 원병열 원선미 원예술 원유미 원화정 유 근 유나예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영재
유용금 유재란 유점선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유금숙 윤기춘 윤명숙 윤성경 윤애자 윤영기 윤은미 윤은옥 윤정녀 윤정희
윤학병 윤홍묵 이가현 이광재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동현 이명숙 이명숙 이무식 이문희 이미숙 이미영 이병림 이병일 이병철
이봉연 이선임 이성도 이성숙 이소영 이숙희 이소자 이승희 이연숙 이연화 이연희 이영규 이영순 이영윤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완래 이용숙 이원일 이윤규 이윤주 이은경 이인숙 이재곤 이재선 이정미 이정옥 이종완 이종현 이주영 이지영 이지은 이진주
이창주 이천희 이춘선 이충훈 이태우 이하경 이한수 이현석 이현아 이혜란 이혜옥 이효민 이희화 임덕수 임미화 임소희 임순희
임쌍용 임윤희 임인숙 임재철 임청용 장경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준용 장지원 장진순 장창순 전수진 전윤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금옥 정명옥 정복례 정복희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수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중승 정주향 정지혜 정진호 정치용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남진 조도산 조상균 조성경 조소현 조양숙 조영순 조영자 조원순
조은비 조정섭 조정일 조종현 조진경 조현우 주명호 주신자 지영필 지운용 지윤성 지정훈 차유진 차재옥 채재관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돈식 최동규 최명기 최문수 최미정 최미혜 최민기 최민희 최선이 최선혜 최선희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태 최승화
최연화 최영순 최영희 최예샘 최옥순 최윤영 최은숙 최은순 최인숙 최재중 최정락 최종대 최종인 탁광희 피종호 하원자 하윤옥
한은희 한영수 한성우 한순덕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희선 한희현 함서현 허순영 허 엽 허인영 허정자 현연희 현재용 홍기수
홍순복 홍영숙 홍은숙 홍의표 홍인숙 홍춘애 홍택기 홍혜림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은주 황정숙 황태용 황변규

후원교회

감 리 교 회	강 변 제 일 교 회	밝은빛장로교회	사 랑 의 교 회	사 암 성 결 교 회
나눔성결교회	동신장로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엘린교회
석사감리교회	신양감리교회	신복교회	신성감리교회	아미교회
순복음조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에사랑교회	에수촌교회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
엠마오교회	주의숲교회	주찬양교회	주향장로교회	옥산포침례교회
우두감리교회	춘천그리스도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동부교회	축복교회
춘천광영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	춘천예담교회
춘천은평교회	춘천평화교회	하늘평안교회	한빛교회	춘천제일교회
춘천침례교회	후평제일교회	춘천광장교회	산솔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성광교회	섬이있는교회	암스트롱병원교회	산천무지개교회
하늘기쁨교회	평성성결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양문교회	춘천효자감리교회
초대교회	강원침례교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터 설곡산기도원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춘천CBMC 춘천와이신협
칠락의 기쁨 행복재가요양기관 ▶명단(단체)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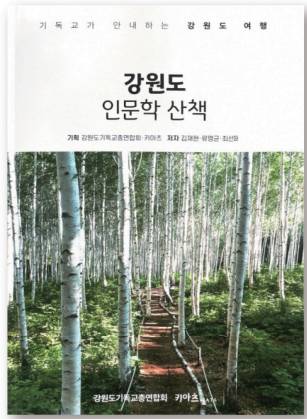
T.033)256-1260 H.010-9698-2993 / 후원계좌번호:신협 131-005-937566(춘천시화운동본부)

창간 1998년 9월 15일 발행인 이사장 이수형 편집장 최상도, 이관형 편집위원 이연희, 이영규, 김춘배, 정숙현, 김진솔
편집·발행 춘천시화운동본부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9 문의 (033) 256-1260 팩스 (033) 257-1260
메일 holyc1972@daum.net

*본 매거진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 매거진에 실린 글, 사진, 그림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드림애드에 있으며 허락없이 본 매거진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나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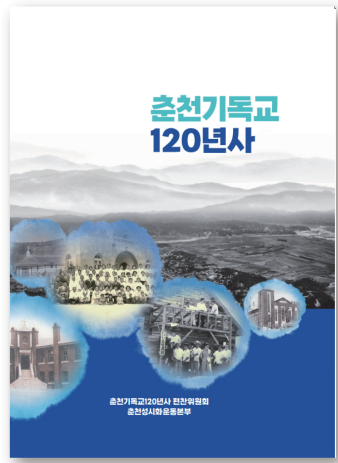
춘천기독교 역사 - 춘천기독교 120년사 강원도 성지순례 - 강원도 인문학 산책

문의 : 춘천성시화운동본부(010-9698-2993)



**기독교가 안내하는 강원도 여행
강원도 인문학 산책**

강원도 전역의 성지와 여행코스들을 추천하고 있다.
사진과 해설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춘천기독교 120년사

1권, 2권으로 되어 있으며 120년의 춘천기독교교회와
기독단체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다.

성시 3월/성경퍼즐퀴즈 : 가족들과 함께 맞춰보세요

참여방법 : 4월 15일까지 정답을 사진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당첨자 5명에게 소정의 상품(상품권 1매)을 보내드립니다.

1		3		4		
				5		5
2						
		6		6		
7						

★ 가로 힌트

1. 바벨론에 포로로 잡힌 사람중 벨트사살은 누구인가?(단1장)
2. 남편을 주라고 부른 사람은?(벧전3장)
3. 한나가 잉태하도록 축복한 제사장은?(삼상2장)
4. 바울이 두 해 동안 날마다 강론한 서원 이름은?(행19장)
5.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의 다른 이름은?(요21장)
6. 구약성경 네 번째 책의 이름은?
7.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다시 사는 것은?(고전15장)

★ 세로 힌트

1. 베레스와 셀라의 어머니는?(마1장)
2.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한 선지자는?(삼상 17장)
3.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약5장)
4.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책망을 받은 교회는?(계2장)
5. 이삭을 제물을 바친 땅은?(창22장)
6. 큰 용사라고 부름받은 사람은?(삿6장)